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윤혜숙 지음 | 오윤화 그림



3, 4학년 중심 학년군

사회: 현대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조사하여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도덕: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5, 6학년

사회: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탐구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를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 학년 다문화 교육



초등학교 5학년 김수로는 '인도 김씨' 2대손이다. 수로는 얼굴이 고무잡잡하고 곱슬머리이긴 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한국 말을 쓰고, 같이 수업을 듣고 운동장에서 뛰어논다. 단 한 번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걸 의심한 적 없는 수로. 그런데 왜 아이들은 수로한테 '가짜', '다문화'라고 놀리는 걸까? 열두 살 수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쾌한 성장담을 읽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꿈꿔 볼 수 있다.

학습 목표

‘다문화’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잡으면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말할 때 유럽인, 미국인 등 서양인과 결혼한 가정을 떠올리기보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과 같이 동남아시아권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그 예입니다. 사실 국적이 같아도 나고 자란 가정에서의 문화는 서로 다 다릅니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국적이 다른 사람과 그 가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너와 내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애초부터 ‘단일 민족’이 아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그 ‘신화’를 강요할 수 없게 된 지금, 여러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굴색이 다르고 말씨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어떻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 ① 현재 다문화 가정이 겪는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봅니다.
- ②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찾아봅니다.
- ③ 인물마다 각자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성격과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 ④ ‘다른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평화롭게 사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제목과 그림 자세히 들여다보기

- 제목에 있는 ‘인도 김씨’, ‘김수로’가 무엇을 뜻할까요?
-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모둠별로 간단히 그림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다섯 문장으로 지어 봅니다.
- 지은 이야기를 발표합니다.



➔ 김수로왕 신화 듣기

- 김수로왕에 관한 신화를 들려줍니다.



▶ 아이들이 ‘인도 김씨’라는 말에서 ‘본관’을 떠올리기는 쉽습니다. 자신의 본관을 아는 아이들이 “인도 김씨도 있어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있나 보네.”라고 말해 줍니다.

▶ 중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김수로왕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김수로왕 신화를 잠시 이야기 들려주면 나중에 책을 읽으며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수로왕이 허씨와 혼인하는 장면을 빼놓지 않고 들려줍니다.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의 ‘김수로왕 이야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인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모듈별로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을 브레인스토밍하여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 적은 것이 많으면 서로 의논하여 비슷한 것끼리 모아 분류합니다.
- 인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생님이 아는 인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이야기해 줍니다.
- 이때 인도의 신화 한 편을 미리 알아놓고 들려주면 좋습니다.



▶ 앞서 말했듯 아이들은 인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흔히 다문화 가정 지원 대상인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이 편견일 수 있고, 그 편견이 차별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도는 그리스와 로마 못지않은 신화의 나라이고, 이 책의 모티프도 김수로왕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인도의 신화를 찾아 옛날이야기처럼 들려주어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수로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친해져서 가족 사진 찍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좋아해 주는 것 등

➔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닮은 점, 다른 점 찾기

- 닮은 점, 다른 점을 적을 칸을 칠판에 나눕니다.
- 고집이 세다, 목공을 좋아한다, 물고기를 잘 만든다, 딸을 좋아한다, 섬세하다, 가야와 관계 있다 등
- 인도와 한국에서 태어났다, 얼굴색이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등

➔ 선생님과 수로의 할머니가 같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 김수로와 허황옥의 신화 이야기, 본래 여러 민족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 등

➔ 설희와 수로 가족에게 일어난 '차별' 찾기

- '다문화 주제에', '토종', '가짜' 같은 표현
- '같은 성(씨족)으로 편 나누기
-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떼먹는 공장 사장 등

➔ 수로네 가족은 왜 '연리지'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을까요?

- 백이십 살 넘은 큰 소나무가 마흔 살 먹은 어린 상수리나무를 제 몸에 붙이고 사는 모습이 꼭 수로네 가족 같아서, 드디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이가 좋아져서 등

➔ “_____해야 한국 사람이다.”

-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그 까닭을 말합니다.



▶ 당연히 정답이 없으며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생김새, 핏줄 등을 까닭으로 차별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 연리지 앞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 동화책 속의 연리지를 바탕으로 교사가 미리 그리거나 인터넷 사진 등을 이용하여 연리지 배경을 미리 그린 종이를 준비합니다.
- 수로네 가족과 같은 이유는 아니라도 어떤 가족이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 봅시다.
- 사진이 준비되면 가족의 사진을 오려 붙여서 그림을 완성해도 됩니다.

▶ 각자의 고민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어떤 갈등이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말해도 좋겠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로네 가족의 갈등이나 우리 가족의 갈등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으며 우리 가족만의 '심각한 문제'라는 무게를 좀 내려놓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의 갈등이 더 떠오른다면 화해하고 싶은 친구와 자기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 어울림 만국기 그리기

- 32절지 반 정도 크기의 (색)종이를 준비합니다.
- 책 속에 나온 다양한 인물들을 떠올려 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어울려서 자기의 문화를 존중받으며 평등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잔치를 벌입니다.
- 친구와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 다른 나라 아이들, 인도(또는 다른 나라)와 관련된 것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즐기는 모습 등을 종이에 그립니다.
- 미리 마련한 긴 줄에 그린 그림을 만국기처럼 붙입니다.
- 어느 정도 그림이 모여 만국기가 만들어지면 교실 천장에 매달입니다.
- 만국기 아래에서 간단한 놀이를 하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 바구완 두마리 발라 까레

- 칠판에 크게 '바구완뚜마리 발라까레'라고 써 놓습니다.
- 수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크게 외쳐 봅니다.
- '바구완뚜마리 발라까레'를 서로 말하며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 학급이라면 잔치를 벌일 것을 미리 알려 주어 나눠 먹을 수 있는 인도 음식과 한국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 당연히 두 나라뿐 아니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나라들을 참가시키면 더 풍성해집니다.

